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현규혜

2017



석사학위논문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o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현 규 혜

2017년 8월





석사학위논문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o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현 규 혜

2017년 8월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o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지도교수 고 경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현 규 혜

2017년 5월

현 규 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6월



## 목 차

국문 초록 .....	i
<b>I. 연구를 시작하며 .....</b>	<b>1</b>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	1
<b>II. 이론적 배경 .....</b>	<b>6</b>
1. 교사 전문성 .....	6
2. 내러티브 탐구 .....	7
<b>III. 연구 방법 .....</b>	<b>9</b>
1. 연구 참여자 .....	9
2. 연구 절차 .....	10
<b>IV. 연구 결과 .....</b>	<b>13</b>
1.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 .....	13
2. 초등영어교사 전문성 개발 요인 .....	45
3. 전문성 개발에 나타난 요인들이 주는 시사점 .....	50
<b>V. 연구를 마치며 .....</b>	<b>52</b>
참고 문헌 .....	54
ABSTRACT .....	55

## 국 문 초 록

#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현 규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경 희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수업에서 교수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초등영어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 요인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는 첫째,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둘째,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위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 생각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세 명의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에서의 공통된 요인은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짓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 ‘성장을 위한 도전’, ‘교사 커뮤니티를 통

한 성장'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각기 다른 개인이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좋은 수업을 하는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여기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공통 요인을 각기 다른 교사의 상황에 대입하여 본다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 연구를 시작하며

##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학창시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영어가 좋았다. 깊게 생각해 보면 영어를 잘한다는 칭찬에 힘입어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좋아서 그 칭찬은 사실이라는 확신도 가질 만큼 주변 친구들보다는 잘했던 것 같다.

중학교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접하였고 어렵지 않게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영어연극대회에 나가 시 대회 1등, 도 대회 2등을 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높였다. 고등학교 때에도 선생님께서 영어 발음이 좋다고 하시며 학교영어축제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고 문법에서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으나 독해를 잘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외국어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영어가 재미있었고, 더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초등영어교육과를 지원하여 다니게 되었다. 초등영어교육 강의를 들으며 역할극, 챗트, 노래 등의 활동을 활용한 수업 시연을 해 보고, 영미 영화를 활용하여 교과 학습 표현을 가르치는 경험도 하며 훗날 교사가 되면 이러한 배움을 실제 영어수업에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사가 된 후 자연스럽게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임교사 시절 4학년 담임교사로서 처음으로 영어수업을 하게 되었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긴 했지만,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동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챗트와 노래는 울동과 함께 하고 역할놀이도 해 보았다.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를 듣고 이해하며, 표현을 재미있게 익히는데 집중하였다. 처음 하는 수업이기에 객관적으로 수업의 효과가 어땠는지 몰랐고, 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아이들이 영어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가르치는 나 자신도 즐거웠기에 영어 수업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 해에 영어전담교사를 다른 선생님이 맡게 되면서 영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고 싶은 영어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속이 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수업’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임 때는 보이지

않던 미숙함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수업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수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동기 유발과 수업 소재가 있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뭔가 수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공개수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가능하면 공개수업은 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각종 공개수업 참관이나 교사연수에 참여하여 배움을 얻으려 하였고, 영어교과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와 관련한 공개수업 참관과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어, 3년차에는 전교생 1800여명인 규모가 큰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5학년 담임교사가 되었다. 영어전담교사 자리에 지원하고 싶었으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큰 학교의 영어전담교사 자리는 너무 높아 보였다. 영어전담교사가 있었기에 영어수업은 할 수 없었고, 담임교사로서의 학급경영, 수업에 대해 고민하며 지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업이 만족스럽게 잘 되지 않아 종종 자괴감에 빠졌고, 피로운 만큼 도움이 될 만한 연수를 찾아 듣거나 책을 읽으며 학급경영과 수업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갔다. 그 다음해에는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작년과 같은 고민과 노력을 하며 지냈다. 이러한 2년의 시간은 수업 전문성보다는 학급경영 전문성에 대해 더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없었지만 보여주기 식의 수업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업의 형태에서 아이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지만, 협동학습법을 적용해 보거나 실생활과 연결되는 자료들을 검색하여 수업에 활력을 넣고자 노력했다. 그 해를 마치면서 학급담임 혹은 교과전담 중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교내에서 영어연극대회를 지도할 영어전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영어 교과를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영어전담교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3년 만에 다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막상 지원하여 영어전담교사가 되었지만, 큰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전담교사로서 진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영어교과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좋았다. 초임 시절 영어를 가르쳤을 때처럼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

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과서에 있는 교과 내용은 그대로 가르치되 교과서에 제시된 게임이나 노래, 챗트 같은 활동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것들로 바꾸어 수업하고, 다양한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수업 자체에 재미를 느끼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의 승패에만 흥미를 갖고 참여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기계적으로 따라 말할 뿐이지 수업을 통해 언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40분의 수업만 하고 가는 영어전담교사와 학생 사이에 담임교사와 학생과 같은 교감이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인한 외로움도 동반되었다. 학급담임교사들의 고충인 힘든 생활지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교사로서의 보람도 없고, 사제지간의 정도 없는 마음이 텅 비어버린 1년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해에도 다시 영어전담교사를 할 수 있었고, 수업을 진행하며 지난해에 느꼈던 같은 문제를 겪으며 고민에 빠져있었다. 당시 그 학교에는 나를 포함한 세 명의 영어전담교사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 원어민 보조교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 원어민 보조교사가 다른 영어전담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그 선생님의 수업이 굉장히 훌륭하며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매우 즐거워한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떤 수업인지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러다 공개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겨 수업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영어수업을 즐기는 모습에 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게 되었다.

‘왜 아이들은 저 수업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교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생기 있는 눈, 활발한 움직임, 씩씩한 목소리. “나는 이 수업이 좋아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온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 또한 생기가 넘쳤다. 수업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서둘러 수업을 마치지 않았다. 수업을 끝내고 교실을 나오는 교사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단순히 40분 수업 안에서 그치게 되는 ‘재미’가 아닌,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로 또 다른 영어전담선생님의 수업에도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면서 그 선생님 또한 이전 수업 분위기와 학생들의 반응에서 비슷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두 교사 모두 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 선생님들의 수업과 같은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선생님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거나 기본학습훈련과 같은 세세한 요인에서부터 활동의 형태를 비슷하게 하여 수업을 해 보았으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저 내가 부족하기에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며 자괴감이 커져갈 때 쯤 두 선생님이 모두 초등 영어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배움을 얻게 되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 또한 초등영어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학원 강의를 듣고,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앞의 두 선생님을 포함한 세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초등영어교육의 목표와 게임의 효용: 세 교사의 견해와 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고경희, 2015)이었는데, 그 논문을 읽으며 세 명의 교사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수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각각 영어지도 과정에서 자신만의 문제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수업이 변화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세 교사의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과정의 흐름에 대해 연구해 본다면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의 연구 대상인 세 교사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수업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기에 연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리하여 현장에서 ‘좋은 수업’을 하고 있는 세 명의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현재의 위치에 있기까지의 거쳤던 과정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해 그들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는데 관여한 요인들을 무엇인지 그들의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본 논문의 주제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현재의 위치에 있기까지 거쳤던 과정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관여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들의 영어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둘째,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교사 전문성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교사 전문성의 정의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겠다. 윤근영(2007)은 교사 전문성의 초점을 수업 전문성에 두었다. 교사의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업 기능이며, 교사로서 수업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기법들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교사의 연구능력과 반성능력과 같은 ‘이해’의 관점이 앞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광민선(2013) 또한 교사의 전문성은 다른 영역보다도 ‘수업’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수업은 교사의 교직 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민선(2013)은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발생된 어떠한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세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능동적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전문성 측면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전보다 강조되어야 함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추출된 몇몇 사례를 근거로 교사의 전문성을 하나의 틀로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해야 할 ‘구체적 행위’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율성을 배제하고 획일화 하는 것이며, 교사의 내면적 주관성을 방관할 뿐 아니라 교사를 기능인으로 양성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했다. 정나라(2015)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따로 평가되기 어려우며, 교사 그 자신이 전문성 판단의 주체가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과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다양한 교수 경험, 선배 교사,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더욱 발전되고,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내용의 살아있는 구현체가 되며, 우리가 지향하는 전인교육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과 본 연구의 대상인 세 교사의 현재 모습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전문성을 ‘수업’의 맥락에서 의미를 설정하

고자 한다.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통해 행복을 느끼며, 수업에 몰입한다.
- 2)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생은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선 언어적 성장을 이루며, 교사는 이러한 교육의 결과에 보람을 느낀다.

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교사의 삶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 경험, 선배 교사, 멘토와의 만남 속에 자신의 맥락에 맞게 대입해 볼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2.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탐구 방식으로 D.Jean Clandinin과 F.Michael Conelly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Clandinin과 Conelly는 개인의 경험이 말해졌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경험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John Dewey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Dewey는 경험의 특징 중 하나가 연속성이라 여겼는데 이는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견해이다. Clandinin과 Conelly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경험이 현재, 과거, 미래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있고,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사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 사이를 오가며 학습하고, 늘 확정되어가는 사회적 환경(social milieus)에서도 경험 사이를 오가면서 학습해 나간다고 하였다.

Clandinin과 Conelly는 또한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개인적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맞도록 종합하고 재구성한 개인적 실천적 지식을 왜곡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의미 있게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방법이 바로 내러티브

탐구라고 하였다. 박세원(2007)은 내러티브 탐구가 교사로 하여금 개인적, 실천적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교육 현상을 맥락적 상황에서 재개념화 하여 자신의 교육 활동을 하나의 공유된 이야기적 삶으로 실현하게 도움으로써 자기다운 교사 정체성의 형성과 계발은 물론,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보아 내러티브 탐구는 본 연구에서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과정과 전문성 개발에 관여한 요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탐구방법으로 보이며, 개인의 경험이 말해졌을 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교육시킨다는 Clandinin과 Conelly의 말처럼 초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세 교사 개인의 경험과 그들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 말해지는 동안 자신의 삶의 맥락과 환경에 대입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택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연구대상은 초등영어교과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세 명의 초등교사이다. 세 명의 교사 모두 영어전담교사의 경력이 있으며, 초등영어교육 석사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하였다.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고경희(201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수업현장을 변화시키며 교수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었었고, 도교육청 주관 영어수업발표대회 등에서 영어 수업의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베스트 영어교사와 교사 대상 영어연수의 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외적으로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교사와 C교사는 앞서 언급한 한 학교에서 연구자와 함께 영어전담교사로 각각 2년,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바 있고, 그 시기에 연구자는 그들의 수업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본 연구의 시초가 되었던 교사들이다. A교사는 2016년 연구 데이터 수집 당시 교직경력 13년차의 교사로, 영어교과 지도경력은 담임과 전담교사로 각각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등영어교육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A교사는 또한 도교육청 주관 영어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아 수업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대외적으로도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교육청 주관 영어연수에 강사로 활동하거나 영어교육 자료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C교사는 2016년 기준 교직경력 7년차의 교사로, 영어교과 지도경력은 담임으로서 3년, 전담교사로서 1년으로 다른 연구자에 비해 비교적 짧으나 서론에서 언급했던 수업 묘사는 바로 C교사의 것으로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준 교사이다. 초등영어교육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도교육청 주관 교실수업개선대회에 참여하여 3등급을 받으며 수업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영어전담교사를 마친 다음 해에 그 전 해 제자의 학부모가 찾아와 영어 수업에 대해 감사 표현을 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어 수업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교사다. B교사는 고경희(2015)의 연구에서 위의 두 명의 교사와 더불어 학습자 자신에 관한 표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사 자신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두 교사와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B교사는 2016년 기준 교직경력 11년차의 교사로 영어교과 지도경력은 영어전담교사로서만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등영어교육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B교사는 베스트 영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도교육청 주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교육청 주관 각종 영어 연수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영어교육에서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세 교사는 모두 대외적으로 영어 수업에 대해 인정을 받아 전문성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서 정의한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의 특징인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통해 행복을 느끼며, 수업에 몰입한다.’,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생은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선 언어적 성장을 이루며, 교사는 이러한 교육의 결과에 보람을 느낀다.’는 세 교사의 수업에서 관찰할 수 있던 사실이기에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대상으로 세 교사를 선정하였다.

## 2.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2016년 2월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각 교사마다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처음 면담에서는 세 교사와 연구자가 만나 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후 면담에서 이루어질 질문들을 제공하였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1)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 2)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교사로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 3) 지금까지의 영어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1), 2)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1.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교사의 삶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교사가 어떤 삶의 맥락과 환경 속에서 영어교사로서의 전

문성을 확립하고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여기서 얻게 된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과정을 토대로 연구문제 ‘2.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와 ‘3.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영어교사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질문 3)은 연구 참여자들이 초등영어교사로서 삶에 대한 반추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의미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질문들에서 ‘전문성 개발’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까닭은 교사의 삶을 하나의 단편적인 주제로 풀어나가도록 했을 때 발화자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놓칠 수 있는 기억의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화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담 없이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이라는 말 대신 ‘영어교육과 관련한 초등교사로서의 삶’이라고 표현하였다.

2차면담은 A교사와 B교사는 2016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C교사는 그 당시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연수가 끝난 후 201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2차면담에서는 영어교사 이전의 영어와 관련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교사가 된 이후 영어와 관련한 삶에 대해서는 큰 흐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교사와 B교사가 함께 한 면담에서는 두 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비슷한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 좋았고, 두 교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3차면담은 2017년 1월에 이루어졌고, 2차면담에서 다뤄진 내용에서 연구자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각 시간에 따른 세 교사의 경험과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3차면담은 개별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교사 각각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인 면담에서 순차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였으나 연구내용 특성상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다음 질문의 답이 나오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발화가 이루어졌다. 면담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옮겼다. 그리고 연구자가 자료를 정리하며 좀 더 알아보

아야 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최종 정리된 자료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각 참여자의 확인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연구 참여자의 견해와 다른지 등을 검토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

#### 가. 영어 학습에 대한 학창시절의 태도

##### 1) A교사 : 학창시절 영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영미문화로, 그리고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다

A교사는 그 당시의 여느 학생들처럼 영어를 중학교 때 처음 접하였다. 지금과 같이 학습 자료가 다양하지 않았기에 교과서나 사전에 의존한 학습을 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위한 영어공부를 하였으며 성적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부러워했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초등영어교육과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초등영어교육 관련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며, 수업 시연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영어공부는 문법공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원어민 교수의 강의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경험을 하며 처음으로 학문이 아닌 언어로서의 영어의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그 이후 회화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에 새벽에 회화전문 어학원도 다니고, 당시 자신 주변의 대학교 친구들은 보통 과외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은 잘 하지 않았는데 A교사는 원어민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 원어민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카페로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학기 중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방학 기간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A교사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라 그런지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재미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도 못했지만 원어민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나 그들끼리 파티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를 더 잘 하고 싶은, 영어를 동경하는 마음이 마냥 더 생겨났던 것 같아요.

A교사는 이처럼 영어와 영미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동시에 초등영어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으며, 교사가 되어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2) B교사 : 학창시절 영어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대학교 까지 이어지다

B교사는 학창시절 자신은 영어를 정말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으면서도 ‘못해요’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할 정도로 B교사는 영어를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저는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못하니까 싫어하는 케이스. 다른 과목은 욕심이 있어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영어는 노력을 해도 못하겠고. 국어, 수학은 1등급이나 2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 그리고 물어보면 원래 이해가 안 가는 거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제 생각에는 차근차근 배워주지 않고 중학교 때 갑자기 ‘Hello’를 처음 들었는데 또 갑자기 살라살라 문장이 막 나오고 애들은 잘하고. 물론 거기서도 못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리고 국어나 수학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쪽팔린데 나 영어 못해 이러면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살짝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어는 가정의 부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은 조

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부러워했었어요. 영어 잘하는 애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고, 나는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B교사는 영어로 말을 할 때 실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이라고 은연중에 배워왔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영어에 대한 이미지와 두려움이 대학교 때 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실수해도 괜찮아’, ‘말 잘 못해도 괜찮아’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때는 스피킹 위주도 아니고 문제만 다다다 푸는 이런 것이었지만, ‘틀려도 괜찮아. 우리말도 아닌데 어려운 게 당연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박혔던 것 같아. 틀리면 큰~일 나는 거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 단어, 한~번도 쓰지 않을 이 단어 모르면 정말 무식한 것이고... 그래서 더 입을 닫게 되고 영어를 멀리하게 되었죠. 그런 이미지가 대학교 때 까지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깨지 못했어요.

이상을 살펴보면 B교사는 학창시절에 영어 성적은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부족한 영어실력과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현실에 의해 자신감과 흥미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실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3) C교사 : 학창시절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했던 경험이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다

C교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교육으로 영어를 처음 접했다고 했다. 스토리가 있는 영어 공부였고, 노래도 부르고 녹음도 하며 목소리도 듣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과로서 영어를 처음 접했지만 어렵지 않았고 재미있었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터는 문법을 배웠는데 국어와 다른 영어

의 규칙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성적이 하락하며 엄청난 사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룹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며 영어를 공부했다고 했다.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면 영어는 3등급 정도 나와서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 중학교 때는 영어가 재미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부터는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하락했고, 점수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니 재미가 없었다고 했다.

C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육대학교에 입학했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교육과를 지원했지만 떨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초등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강의에서 스토리텔링 수업 시연을 하는 활동을 하는데 준비과정과 수업시연 경험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했다. 인형극을 활용하여 수업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C교사는 영어공부는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속적으로 EBS ‘굿모닝 팝스’를 듣고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거나 전화영어를 했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영어로 말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은 없었고, 두렵기 보다는 못하니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영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C교사는 학창시절 영어에 재미를 느끼며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교육대학교 진학 후에는 초등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며, 인형극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시연해 보면서 새로운 수업 활동에 재미를 느끼며 ‘이렇게 가르치면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C교사는 영어에 대한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 왔다.

#### 4) 세 교사의 영어 학습에 대한 학창시절의 태도

세 교사의 영어 학습에 대한 과거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A교사와 C교사는 공통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반면 B교사는 영어에 대한 흥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현재 세 교사 모두가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한 것으로 미루어 교사

이전의 영어에 대한 흥미 또는 거부감은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확립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영어에 대한 경험이 교사 전문성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행로

### 1) A교사

#### 가) 교직 1년차, 2년차 : 영어 수업을 시작하다

A교사는 교직 1년차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그 당시 처음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가 들어왔는데 동학년에서 교환 수업을 위해 과목을 배분하는데 영어 수업을 자원했고 자신의 반을 포함하여 2개 반을 가르치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그때의 수업은 처음이라 그냥 하루하루 진도를 나가는 정도였다고 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서 저녁에는 외국어학습센터의 원어민수업을 받으러 다녔고, 회화전문 어학원도 다니곤 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언어가 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 당시 근무 학교가 영재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수학교과로 연구학교 보고회 수업을 하는데 한 선생님께서 수업을 분, 초로 체크해주시며 수업 구성을 잡아주셨고, 이것이 자신의 수업 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지금도 공개수업과 같은 수업을 준비할 때 지도안을 보면서 그 때와 같이 분, 초로 체크하며 수업 구성을 보면서 수업 모의 해 본다고 했다.

2년차에는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고, 영어교과는 지도하지 않았으며 영재연구학교에 관계된 업무로 밤 12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며 정신없는 1년을 보냈다고 했다.

## 나) 교직 3년차 : 영어에서의 성장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다

교직 3년차가 되던 해 A교사는 6학년 담임을 하며 영어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해 2학기부터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로 파견되기 시작했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영어 교사로서의 교직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가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원어민교사가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온 원어민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저랑 어떻게든 말하려고 다가오고, 그러다보니 거의 매주말마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놀러 다녔어요. 1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기 위해 손짓 발짓 총동원 하며 노력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 서로가 언어가 늘게 된 거죠.

A교사는 영어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지루해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 평가 관련하여 수업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와 A교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수업 발문을 하며 두 사람이 함께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수업 진행 방식이 매우 호평을 받았고, 그러면서 A교사의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한계점이 A교사를 영어 능력에 대해 더 성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회화나 수업에서 실력이 늘어나는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한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퇴근 후 남은 모든 시간은 항상 원어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지냈고, 정말 친한 친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원어민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1:1로 만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럿이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에 못 견디

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회화는 어떻게든 눈치껏 되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와 같이 팀티칭을 할 때, 제가 코티칭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원어민한테 수업을 유도해야 하는데 말을 못해서 원어민한테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어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죠.

#### **다) 교직 4년차 : 내가 느끼는 답답함에서 갖게 된 영어교육의 관점,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자'**

교직 4년차에 A교사는 학교를 옮기며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고, 자신의 반과 2학년 1개 반을 교환 수업으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교재가 없어 수업을 혼자 오롯이 준비해야 했다. 그 때, 스토리텔링 교수 관련 장학자료를 읽고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많은 원어민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느꼈던 답답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 때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을 보며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며 재미를 느끼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상황의 영어표현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신선했어요. 배움을 위한 배움이 아닌, 자연스럽게 익히는 언어. 아이들도 스토리텔링 수업을 좋아했어요. 기계적인 영어 말고 실용적인 영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려 했으나 돌아보면 그 당시 수업이 체계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자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고, 실제 수업은 언어 사용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에 더 치중했던 것 같아요.

#### **라) 교직 5년차 : 교원대학교 파견을 통해 영어교사로서 성장과 동시에 자극을 받다**

교직 5년차에 A교사는 영어 전담교사를 맡게 되면서 3, 4, 5, 6학년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 해 만난 원어민 보조교사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주변의 원

어민들과도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고 했다. 서로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활동도 하며 가깝게 지냈으나, 이전에 느꼈던 언어의 한계로 인한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았다. 체계적으로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어 연수를 찾아 보았다. 한 달 호주 연수를 다녀온 후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 지원을 했으나 떨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당시 학교 여건은 파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직에 돌아오려는 절절한 희망을 피력하여 허락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제가 갈 당시에는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지원할 때 떨어지고, 다시 지원했어요. 연수에 가기 위해서 점수를 열심히 쌓아서 합격했는데, 이번엔 학교가 걸리는 거예요. 6학급이라 교장선생님이 전교직원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거기서 왜 가야 하는지 말하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가고 싶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떨어졌고, 제가 이걸 가기위해서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조금만 양해해주시면 가서 열심히 배우고 오겠다고 해서 허락받고 갔죠.

A교사는 교원대학교 영어연수를 다녀오며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영어를 너무나 잘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자극을 받았고, 영어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연수 후에는 특히 듣기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교원대 연수중 중간에 원어민 친구들이 서울에 오게 되어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원어민 친구가 “너 지금 우리 하는 말에 웃고 있어. 예전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 듣기가 엄청 늘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교원대를 다녀오면서 듣기 능력은 정말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마) 교직 6년차, 7년차 : 영어수업연구대회 1등급을 받으며 수업 전문성을 높이다**

A교사는 연수를 다녀온 직후 본래 근무학교에 자리가 없어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영어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였다. 5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고, 담임영어체제였기 때문에 영어수업은 자신의 반을 대상으로만 가르치게 되었다. 이 때 영어수업연구대회에 관한 공문을 보고 도전하기로 한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수업연구대회에서 A교사는 1등급을 받게 되면서 수업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하며, 그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너무 운이 좋았어요. 당시 교장선생님은 영어교육분야에서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교감선생님께서도 수업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이어서 수업연구대회를 지원한 이후 두 분이 수업을 매 시간마다 보시고, 지도안 보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1차 수업 심사를 받을 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지도안을 점검하고 수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어요. 요즘도 내게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업도 많이 찾아보며 노력했죠. 교과서 단원과 연계된 동화책을 찾아 그 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짜서 수업을 했는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재구성을 하여 이야기 해 준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주가 아니고 아이들이 주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했고, 최대한 아이들이 많이 발화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수업을 너무 재미있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영어자율학교를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 세계명작동화 한 문장씩 외우도록 하고 확인해 주셨는데 제 수업과도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수업을 위해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가운데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1등급을 받으며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해에 A교사는 4학년 담임으로서 자신의 반만 영어수업을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바) 교직 8년차, 9년차, 10년차 : ‘기계적인 영어 말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발전하다

A교사는 새로운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며 6학년 영어전담교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 반을 가르치며 같은 수업을 반복해야 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그저 게임의 즐거움만을 위해 활동에 참여하며, 기계적으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게임을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았지만 뚜렷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해 말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에 지원하기로 한다.

다음해에 A교사는 5학년 영어전담교사를 하며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의미한 수업’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수업’에 대한 강의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속의 경험을 소재로 영어로 자신의 말을 하도록 하는 수업에 대한 것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수업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게 되었고, 그러한 수업을 진행해 나가자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신선하게 생각하고 활동에 집중하게 되어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A교사는 이미 수업발표대회에서 1등급을 받으며 영어 수업 전문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되돌아보면 그 당시 수업은 교과서에 제시된 기능적인 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 동화책과 게임 등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했었던 것이고, ‘유의미한 수업’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자신의 수업이 영어교육목표의 본질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육청에서 창의인성과 관련하여 지도안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게 되었다고 했다. 일반적인 교과서 수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창의요소(독창성, 유창성 등)와 인성요소

(감사, 협동, 배려 등)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안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학원 강의에서 들었던 ‘유의미한 수업’과도 맞물렸다. ‘감사표현’을 주제로 하여 계획한 수업을 예로 들면 교과서에서의 표현은 가상 상황에서 선물을 주고받거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인데, 창의인성 지도안에서는 실제 아이들이 감사한 일에 대한 일화를 가지고 감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느낀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한 지도안이 전도에서 1등을 하며 인정받게 되었고, 요즘도 자신은 영어 교육 관련 계획서를 내거나 영어 지도안을 짜게 되면 그때 만들었던 지도안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듬해에도 A교사는 계속 하여 5학년 영어전담교사를 맡게 되었고, ‘유의미한 수업’을 실천하여 갔다. 수업을 해 나가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쓰기로 표현하도록 할 때는 단편적인 문장 밖에 쓰지 못하고 게다가 그 문장은 자신과 관련 없는 것들-따라 쓰기, 베껴 쓰기, 받아쓰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교사는 아이들의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쓰기’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석사 논문 주제를 ‘영어 동화를 활용한 유의미한 글쓰기’로 하여 자신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동시쓰기, 포스터 그리기, 만화그리기 등의 활동을 시도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으나 동화책을 활용하여 예시를 제시하고 단어 변경과 한 두 문장 쓰기에서부터 진행해나갔다. 유의미한 글쓰기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고, 수업시간을 벗어나 자신의 생활에서 영어를 활용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고 했다. A교사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 사) 교직 11년차, 12년차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도교육청 영어 직무연수 강의를 하다

A교사는 교직 11년차가 되던 겨울방학에 ‘창의인성 수업’과 ‘유의미한 수업’을 주제로 영어 직무연수 강의를 하였다. 모든 영어교사가 자신만의 추구하는 교육

의 방향이 있으며, 모두 같을 수 없기에 짧은 시간의 강의로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강의를 하는 것을 주저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 했던 수업을 하나의 예로 보여줄 수 있으며 자신의 강의를 계기가 되어 단 한사람의 영어교사만이라도 ‘저렇게 수업을 해 보아도 괜찮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아) 교직 13년차 : 도교육청 영어자료 제작에 참여하다

A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육(‘들엄시민’)과 관련한 장학자료에 공모하여 개발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엄시민’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풍부한 영어 듣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었는데, 이를 학교에서도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장학자료를 공모하였다. A교사는 자신의 자녀에게 영어 DVD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영어 DVD에서 나오는 실생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3학년 각 단원의 주제별로 DVD 리스트를 만들고 그에 따른 지도안을 만들었다. 같은 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작성한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 있어 했다고 했다.

#### 자) 지금까지 영어교사로서의 삶,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의 영어교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A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재미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를 가까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해 왔네요. 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영어공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제 스스로 균형을 맞추며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야겠죠.

## 2) B교사

### 가) 교직 1년차, 2년차 : 수학교과 영어몰입 수업으로 처음 영어수업을 하다

영어를 끄찍이도 싫어했던 이교사가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는 영어몰입학교였다. 게다가 B교사는 영어로 연구발표회 수업까지 했어야 했다. B교사는 그때 스스로도 즐겁지 않고, 자신의 능력 등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했다고, 그때를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교사의 연구발표회 수업은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수업이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수업 하는 것은 좋아해요. 교사니까 수업을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 신념이 비교적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 수업이면 즐겁게 하겠는데 영어가 들어가니 너무 싫은 거예요. 미쳐버리겠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 때 생각해보면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고, 너무 못하기도 해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니 열심히 준비했어요. 새벽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영어에 대해서는 학원 선생님, 주변 선생님들께 많이 물어봤어요. 영어를 거의 70% 사용하면서 수업했어요. 교실영어+수학용어였죠. 연구보고회 공개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장님께서 많은 수업자 중 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인상 깊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가장 칭찬받았던 점은 ‘무엇이 똑같을까?’라는 노래에 합동의 세 가지 조건의 내용으로 영어가사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그 노래를 영어로 완전히 외워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칭찬을 받으니 ‘어? 영어로 수업이 되긴 하네.’ ‘내가 생각하는 수업과 영어수업은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B교사는 이때부터 공개수업을 할 때 마다 자신의 수업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다시 보며 수업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그 때 제 할머니께 영어공개수업을 자랑삼아 보여드릴 목적으로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 제가 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했지?’, ‘아이들은 딴 짓하고 있네?’ 라는 것들이 보이면서 수업에 대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수업을 개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공개수업 할 때마다 찍어서 혼자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업할 때 제 말투나 행동, 그리고 아이들의 사각지대에 대해 신경쓰게 되었죠.

#### **나) 교직 3년차 : 홈스테이 가족들과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다**

B교사는 5학년 담임교사로서 영어수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작년 연구 보고회를 준비하며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새벽에 어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학원에 다니며 솔직히 눈에 띄는 발전은 없었고 4~6개월 정도 다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대신에, 초등교사로서의 성장을 위한 수업연구를 했으며, 그 일환으로 공개수업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다고 말했다. 보통 일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꺼려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묻자 B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개수업을 제가 자원하는 이유는 수업을 잘 해서가 아니라, 공개수업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조력이 오게 되요. 1:1과외나 다름없죠. 당연히 저도 공개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교사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깨지 않으면 수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해 겨울방학에 B교사는 영어연수를 받게 되었다. 영어 공부보다는 여행이 가고 싶어 선택했던 이 연수가 자신이 평생 가져왔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연수를 하나 받았거든요. 사이버 영어연수. 온라인으로 하고 1개월 외국연수 가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가보다는 여행도 가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교사들 중에서도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연수에서도 영어능력에 따라 반을 상, 중, 하로 나뉘었는데 항상 하반에 속했고 사실 홈스테이 가족들과도 대화가 제대로 안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제대로 동기부여 받고 왔죠. 홈스테이 가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성격이 활발하니까 말이 안 되어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죠.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것 좋아하니까 한식 만들어주니 좋아해주고, 제가 애도 좋아하니까 아기도 봐주고. 거기서 영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구 중에 하나구나. 내가 사람에게 내 말을 전달하고 싶잖아, 다른 나라 사람한테. 그럼 그걸 눈빛으로도 전달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내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 손짓 발짓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 툴 중 하나. 그런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너무 창피해서 입도 안 열었고, 제가 못해요 하면 으레 한국 사람이 하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난 진짜 못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지금 나의 큰 장점이 되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선생님 영어 진짜 못했다고. 나의 리얼한 경험이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얘기 할 때도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되게 동기부여가 된대요. 실제니까요.

**다) 교직 4년차 : 자신이 가졌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아이들은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어전담교사를 시작하다**

B교사는 연수에서 돌아온 후, 영어전담교사를 지원하였다고 했다.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영어수업을 자원하여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연수 이전엔 영어를 엄청 싫어했는데 생각해보니 영어가 두렵고, 자신 없고, 못하니까 ‘나는 영어가 싫다’라고 방어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서 ‘영어가 별거 아니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영어에 대해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어전담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나는 교사가 되어서야 께 수 있었던 그 틀이 학생들은 처음부터 그 틀이 없으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B교사는 영어전담교사가 되었고, 영어 회화 수준이 낮아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영어 수업을 준비하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원어민보조교사에게 많이 물어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름 협력수업이 잘 이루어졌고, 40분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게임, 다양한 노래 등의 활동을 넣어 선생님이 개그맨이 된 것처럼 시종일관 신나게 수업을 이끌어나갔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동안의 영어수업과 다르게 재미있다고 좋아했고, 그래서 나도 영어수업을 할 수 있구나,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게임 자료를 찾아보거나 자료들을 만들고 어학실 환경정리에도 힘을 쏟는 등 수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연구공개수업을 하며 시작하게 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비평과 반성을 꾸준히 해 나갔다.

수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평과 반성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저는 제 수업이 끝난 다음 잘했던 것, 아쉬웠던 것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수업을 진행한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수업이 어땠는지, 활동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많이 물어보았어요. 저는 제 수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업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으나, B교사는 점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려면, 원어민과 협력수업을 잘 이끌어가려면 자신

의 영어실력을 더 갖춰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한번은 원어민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한국문화에 대해 비판하는데 제가 반박하고 싶어도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교사이고 보조교사가 원어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어가 잘 안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눅들 때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수업이 원어민보조교사에게 끌려 다닌 부분도 없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부터 시작해서 기본 영어 회화를 공부했죠. 영어실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고 묻는 선생님들께 중학생 수준의 기본 문법책과 간단한 영어회화 책을 먼저 추천해요.

그리고 이 때 학교별 영어캠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B교사와 원어민보조교사와 고심 끝에 계획한 영어캠프 포맷이 아직까지도 여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B교사는 자신이 수업과 자신이 맡은 모든 일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성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으로 인해 영어전담교사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라) 교직 5년차 : 영어전담교사를 하며 수업성찰과 공개수업을 통해 영어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다**

B교사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그 학교에서도 영어전담교사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수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업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습목표, 단원목표를 보면서 핵심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학년간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재미'가 목표인 수업을 했다. 40분 수업 내내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발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어민보조교사와 항상 수업에 대해 의논하고, 수업이 끝나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공개수업 또한 자원하여 많이 하였는데, 절대 잊지 못할 공개수업 일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공개수업을 했는데, 한 선생님이 수업을 완전히 비판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비평들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다 납득이 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수업이 보여주기 식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 이런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활동도 많이 준비하고 아이들 보다 교사 위주의 수업을 했어요. 그 때 많은 반성을 했고, 그 이후로 수업 연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B교사는 아이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기계적으로 말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말을 하도록 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어교육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B교사에게 교육청에서 영어 관련 대회 사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B교사는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마) 교직 6년차, 7년차 : 대학원과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 영어 교육 공동체를 통한 영어 전문성의 확립**

교직 6년차에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고 초등영어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원을 다니며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으며, ‘유의미한 수업’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자신이 수업을 하며 고민했던 ‘기계적인 반복 수업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유의미한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화’라는 주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개인화’라는 것은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의를 듣기 이전에는 수업연구라고 하면 게임에 대한 연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한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했으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직 7년차가 되던 해에 학교가 영어연구학교로 지정되고, B교사는 다시 영어전담교사가 되었다. 영어전담교사 3명, 원어민보조교사 2명, 영어회화 강사 2명, 수석교사 1명으로 학교 내에 영어교육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 2학기에 교원대학교 6개월 파견 영어연수를 가기 전까지 영어교육 공동체 중심으로 수업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며, 영어스터디도 하였다고 했다. B교사는 교원대학교 파견연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하와이 초등학교에 파견을 가면서 영미문화권에서의 수업 참관을 통해 영어수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전에 학생으로서 한국 영어교육을 받아왔고, 교사로서도 한국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교수스타일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수를 다녀와서 학교로 돌아와 공개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수업은 항상 파이팅이 넘쳤었거든요. 반드시 모두가 집중해야 되고, 낙오자 있으면 안 되고, 한눈파는 아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수업 스타일이었는데, 많이 유해지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엔 수업활동이 순차적으로 제시간에 딱딱 넘어가야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리는 여유도 생겼죠.

이렇게 B교사는 대학원 진학 중 한 강의를 통해 수업에 대한 관점을 ‘재미있는 수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업’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 영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수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해에 B교사는 TEE인증 1단계를 통과하였다.

**바) 교직 8년차 :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대회(1년 프로젝트)로 영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다**

B교사는 계속해서 영어전담교사를 하며 유의미한 활동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짧게는 단원, 길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교육과정 흐름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가운데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대회(1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영어과 1등급을 받게 되었고, B교사는 자신이 실천한 교수법이 나름대로 검증되었다는 느낌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또 자신의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에 관한 표현 활동의 영어 교육적 효과’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업을 재구성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긴 해요. 그냥 교과서대로 수업을 나가고, 재미있는 활동 한 가지를 넣으면 간단하게 아이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수업에서 교사가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실제적인 언어를 익힌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따라 말하기를 했다는 생각에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 하려면 재구성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각기 다르니 일일이 다 질문을 받아줘야 하고,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하고, 교사로서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 이야기 한 두 마디 한 것뿐인데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띄죠. 그러면 교사로서 정말 뿌듯해져요.

이렇게 B교사는 아이들이 실제 자신의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수업을 해 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대회에 나가 1등급을 받으며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B교사는 TEE인증 2단계를 통과하고 베스트

영어교사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원어민보조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원어민한테 강의하고 이러면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교육을 했으면 그 쪽에서 나를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교육적으로 아는 게 원어민보다 많아서 강의하는 거라고 당당히 얘기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 남편도 여전히 영어는 난 못해.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강의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영어는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 **사) 교직 9년차, 10년차 : 수업의 안정기, 베스트 영어교사로서 영어 수업을 하다**

베스트영어교사의 자격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B교사는 이때를 수업의 안정기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실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때였기도 했다고 말했다. 베스트 영어교사이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 없이 단독수업을 진행해야 했고, 영어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고 했다. 영어수업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적어도 2명이상, 3명은 있어야 서로 수업에 대해 의논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교육과 영어수업에 대한 강의 섭외가 들어오며 초등 교사를 상대로 한 방학 중 직무연수와 전국 원어민 토크장학생 연수를 진행하였다.

#### **아) 교직 11년차 :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전파하고 싶다**

출산으로 인해 1학기를 휴직하고, 2학기에 다른 학교의 담임으로 새로 발령이

났다.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로 인식되어 같은 학년 선생님들께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고, 그래서 동학년 ‘왕왕술술’이라는 영어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간단한 글을 읽고 외우며 같이 체크해주는 형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졌다. B교사는 이전의 자신처럼 영어를 두려워했던 선생님들에게 자신 또한 영어가 두려웠고 영어를 잘 하지 못했으나 자신이 변화한 것처럼 영어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파급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영어 수업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학창시절, 교사 초임시절까지 영어를 못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 자) 지금까지 영어교사로서의 삶,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의 영어교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B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제가 누군가 많이 케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시고 자매들이 많아서 공부에 대해 신경 써 줄 사람이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 이런 환경과 영어를 정말 못했었다가 지금은 너무 좋아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공교육에서도 영어교육으로 의미 있는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죠. 이제 만으로 10년째인데, 교사로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조금 성장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면, 또 다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인 것이 보여요. 저는 지금까지 영어교육관련 석사학위 논문도 썼고, 교실수업실천사례 1등급도 받았고, 베스트교사로서 인정도 받았으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격려도 되고 보상도 되네요. 지금도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첫 출발이 캐나다 2개월 파견연수가 될 것 같아요. 또 고민하고 있죠. 박사학위나 영어교육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루트를요.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담임교사를 하지 않

으니 놓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신 나의 강점은 영어수업을 할 때 빛이 나기 때문에 영어수업을 할 기회가 없더라도 다른 쪽으로 영어교육을 위한 공부나 연수를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으로서의 내 삶이 행복했으면 해요. 내가 행복해야 교사로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인간인 ○○○서 행복하면서 교사로서도 행복 하고 싶다. 그런 가장 큰 목표를 위해 달려갈 거예요.

### 3) C교사

#### 가) 교직입문 : 담임교사로서 영어수업을 시작하며 ‘학교교육만으로 영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다

C교사는 임용고사 합격 후 발령을 기다리는 1년 동안에 기간제 교사도 하고, 운동과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며 지냈다고 했다. 첫 발령을 받고 4학년 담임교사로 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a, b, c, d도 모르는 아이부터 영어로 일기를 쓰는 아이까지 격차가 너무 심했다고 했다. 담임교사로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했었기 때문에 영어수업만 특별하게 따로 연구를 잘 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커져갔다고 했다. 그 때부터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르는데 왜 영어 교과서에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다뤄져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일단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phonics를 가르쳐주었고, 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를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물어보며 부진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렇지만 점점 공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 커져갔다고 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교과는 사교육의 영향이 너무 컸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영어교육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영어 컨설팅 수업에 참여했고, phonics 부분을 재구성하여 phonics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컨설팅수업 후 아이디어가 좋고 구성도 좋았다는 칭찬을 받고 수업 발표대회도 나가보라는 제안을 받아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고, phonics 교육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

교감선생님께서 대학원을 가보라고 제안하셨는데, 그 때 대학원에 진학하여 phonics와 영어교육과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C교사는 자신은 ‘내 자체에서 답을 찾는 스타일’이라 대학원 진학에 대해 좀 더 고민하였다고 했다.

#### 나) 교직 2년차, 3년차 :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실제 언어를 가르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다

교직 2년차에 C교사는 그 전해와 같은 학년과 업무를 맡게 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공교육 영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었고, 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영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 해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영어교육에 대한 재원은 많은데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학년 말이 되니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듬해 6학년 담임을 맡게 되고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에 입학 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유의미한 수업’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가 교육관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목표와 교과서가 우선이었어요. 수업을 준비할 때 우선 수업목표를 보고 그에 맞는 활동을 찾아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유의미한 수업’ 강의에서는 아이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활동과 영어표현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수업 목표나 교과서 내용보다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서 실제 삶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이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의 삶에 직결되어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전체적인 교육관이 바뀌게 된 거죠.

강의를 듣고 난 이후 C교사는 영어 수업에서 ‘배움을 실제 삶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면서 phonics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영어연수로 캐나다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시야가 매우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이후 아이들에게 영어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캐나다에서 느낀 감동을 이야기 해주며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다른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영어를 배우면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고 한다. 캐나다 연수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의외로 별 부담 없이 영어로 이야기 할 수 있던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정의적 장벽이 생기자마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또한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입을 닫아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어 수업을 하게 되면 먼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데 모르는 건 당연한 거라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려고 노력해요. 제 스스로도 기대감을 낮추고 아이들이 못해도 괜찮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말을 하고 싶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동기유발에 힘을 쏟는 편이에요. 일단 말을 하고 싶어져야 하나까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에게나 선생님에게 질문하도록 독려해요.

C교사는 캐나다 연수에서 배웠던 영어수업기술 등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했다. 영어로 체육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며 그 나라의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보며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캐나다에서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콜라주를 만들어서 소개하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동작과 형용사 단어 하나를 준비하여 소개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미술이나 체육과 연계해서 가르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영어 수업의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던 것 같아요.



#### 다) 교직 4년차 :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실제 언어’를 가르치며 영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하다

C교사는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곳과는 다르게 시내의 큰 규모의 학교로 가게 되었다. 6학년 영어전담교사를 맡게 되면서 완벽하게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했다. 아이들 보다 교사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웬지 큰 학교인 이곳은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그래서 교실영어를 거의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익숙해지고 나서도 교실영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교실영어를 잘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서로 익숙해지고 두려움도 줄어들어 교실영어를 준비하며 수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찾아보니 저는 말로 아이들을 설득하며 수업에 끌어오는 스타일인데, 교실영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영어로 인해 수업이 정형화 되는 것이 싫었어요. 저는 매 수업마다 형태가 바뀌는데 고정된 형태의 수업에 맞게 되어있는 교실영어가 맞지 않았죠. 수업 시작해서 인사 나누기 정도도 영어로 하는데 저는 싫었어요. 날씨와 기분을 묻는데 아이들도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이야기 하는 느낌이랄까? 저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하고,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먼저인데 교실영어로 그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영어로 말이 많아질수록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C교사는 영어전담교사가 처음이라 2월에 영어전담교사 경험담과 영어전담교사로서 학급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교실영어들을 알아보며 공부했다고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어 수업을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실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재구성한 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과서대로 갈 것인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재구성한

내용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는 중에 1학기 중반 쯤 교실수업개선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모든 수업의 활동을 재구성하고 실천해 나갔다고 했다. 그때를 회상하며 C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수업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을 다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저로 인해 영어가 좋아졌다고 했고요. 매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며 지치기도 했지만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재미 있고 좋은 수업을 해 주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더불어 아이들의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니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죠. 매일 수업을 계획했고, 그러면서 수업에 대한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의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C교사는 그 때 자신이 너무 운이 좋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학원 과제로 수업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촬영을 해 주신 같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코칭을 해주셨어요. 보통 촬영을 하면 교사의 모습을 주로 촬영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촬영해주셨죠. 그 때 처음으로 아이들의 시선으로도 수업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맡은 반 중에 가장 힘들었던 반을 촬영했는데, 제 스스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보이더라고요. 더불어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제 욕심으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제 욕심을 버리고, 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영어전담교사 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었고,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였어요.

#### 라) 교직 5년차, 6년차 : 유의미한 수업을 다른 과목에 접목하다

C교사는 2학년 담임교사가 되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그해 대학

원을 수료하고 지난 해 실천했던 수업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해 운동회 때, 처음 뵙는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작년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영어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했던 나의 교육이 옳은 길이었다는 확신이 들게 되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했다.

그 다음해에도 6학년 담임교사로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고, 논문을 작성하고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삶에 적용하는 유의미한’ 영어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다른 과목에도 접목시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 **마) 교직 7년차 :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를 받으며 성장과 동시에 갈등을 느끼다**

C교사는 영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가고 싶었던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를 신청하여 다녀오게 되었다. 높은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영어공부에 대한 자극이 듬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 함께 연수에 참여하며 제 자신이 영어공부에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전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로서의 상황에 따른 한계만 타했었는데,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수업경력이 쌓인 교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계속 가르쳤다면 영어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해, 한 해가 쌓여 전문성을 만들고 싶은데 영어를 가르치는 경력이 일정치 않게 되니 아무래도 어렵죠. 현재 시스템에서 영어를 계속 가르치려면 담임을 포기해야 하는데, 저는 담임교사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영어교육으로 계속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요.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그렇게 되면 영어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선생님들도 배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영어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전담교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겁을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선생님에게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저의 진로에 대해 고민중이에요.

#### **바) 지금까지 영어교사로서의 삶,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의 영어교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C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 해 보니 제가 교사로서 계속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 같네요. 열심히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어요. 영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도 했고, 영어교육으로 박사학위까지 바라볼 정도로 영어에 빠져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교사의 삶과 담임교사의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되네요. 다만 그대로인 것은 아이들의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사,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경력을 쌓으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 **4) 세 교사의 초등영어교사로서의 행로**

##### **가) A교사**

A교사의 영어교사로서의 삶을 살펴보면, 영어와 영어문화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 영어 학습과 교사로서 영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수업을 자원하였고, 퇴근 후 외국어 학습센터에서 강의를 듣는 등의 개인적인 영어공부도 지속하였다. A교사는 지금 영어교사로서

의 자신을 만든 전환점이 된 계기가 원어민 교사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는데, 원어민 교사를 투입한 많은 학교의 영어교사들이 모두 A교사처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원어민 교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감과 동시에 A교사 또한 영어 원어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다가갔기에 둘의 시너지가 커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교사는 원어민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개인적인 영어실력도 쌓게 되었고, 함께하는 수업에서도 호응을 맞추며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나갔으나 점점 회화에서의 한계와 수업 협의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교원대학교 6개월 파견 영어연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이 느끼는 영어에 대한 답답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교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화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되고,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 이후에 영어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으로 수업발표대회에서 1등급을 받게 되며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으나, 그 때의 수업은 언어의 기능적인 면과 흥미와 재미를 중점으로 둔 수업이라고 고백하며 대학원 진학 후 ‘유의미한 수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어동화를 활용한 유의미한 글쓰기’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진행하며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쓸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이 A교사는 영어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영어교육으로 연결시켰고, 영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였으며 도전하고 성취하며 오늘날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 나) B교사

B교사의 영어교사로서의 삶을 살펴보면, ‘교사는 수업을 잘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현재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임교사 시절부터 교사라면 당연히 수업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였고, 공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초임시절에도 여전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때 진행한 영어공개수업에서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영어수업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어연수에서 1개월 동안 홈스테이 가족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며 영어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의 벽을 허물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아이들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영어전담교사에 지원하게 되고, 영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수업에 대한 신념이 강한 B교사는 영어수업 또한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 공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원어민 교사와 수업 협의를 하며 수업 성찰을 해 나갔다. B교사의 재미있는 영어수업에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고, B교사 또한 만족하며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어실력에 대한 한계가 느껴져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며 아이들이 기계적인 말을 반복해 나간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언어를 이야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교원대학교 6개월 파견 영어연수와 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로 진학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이를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을 변화시키게 된다. 교원대 연수와 대학원 진학 이전에는 재미를 중점에 두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을 쏟았다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활동을 재구성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1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 나가며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대회에 참여하여 1등급을 받게 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B교사의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립시키게 된다. 그 이후로 베스트 영어교사가 되어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B교사는 교사는 수업을 잘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수업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신이 학창시절 가졌던 영어에 대한 편견을 학생들에게 갖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하게 된다. B교사는 자신이 영어를 못했었던 경험이 오히려 아이들과 예전의 자신처럼 영어 수업에 두려움을 가지는 교사들에게 격려가 된다고 하였다. B교사는 또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도전하고 성취하

며 오늘날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 다) C교사

C교사는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가능한 영어교육’을 추구하면서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C교사는 첫 발령지에서 학교의 영어 수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진학생을 가르치며 많은 고민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phonics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영어 교육에 관해 조언을 얻고 싶은 생각에 수업 컨설팅을 신청하여 수업에 대해 호평도 받고 조언도 얻지만 계속해서 공교육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유의미한 수업’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면서 자신이 고민해 온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가능한 영어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교과서와 수업 목표 안에서 그에 맞는 활동을 찾아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배움을 실제 삶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교육을 영어전담교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이 때 연구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수업을 하게 된다. 교과서 내용을 아이들의 삶과 연계하여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C교사로 인해 영어가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며 즐거워하고 언어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전문성을 성장 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C교사는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가능한 영어교육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업 컨설팅을 받고 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에 진학하면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수업에 적극 활용하면서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 2. 초등영어교사 전문성 개발 요인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 교사 간 공통 요인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 가.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

세 교사 모두에게는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 A교사는 대학교 시절 원어민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영어라는 언어로 대화하는 즐거움을 처음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 원어민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으며 그들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교사는 교사가 된 이후에는 원어민보조교사들과 동료교사를 넘어선 친구로서의 만남을 이어나가며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동시에 영어에 대한 관심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나가며 영어 수업을 자원하고,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연수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A교사는 영어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영어가 재미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A교사가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의 측면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교사는 학창시절부터 영어로 말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은 없었고, 두렵기 보다는 못하니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영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대학생이 되면서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교사가 되어 영어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했다.

반면 B교사의 경우 앞의 두 교사와는 다르게 학창시절부터 교사 초임시절까지 영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다. 초임 시절 억지로 하게 된 ‘지옥 같은’ 영어공



개수업을 훌륭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해외 연수에서 홈스테이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는 경험을 하면서 영어가 두려운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도구 중에 하나임을 깨달으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깰 수 있었다고 했다. B교사는 이를 계기로 영어 수업에 도전하고, 개인적인 영어공부를 하며 성취감을 얻는 동시에 영어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계속해서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이 세 교사가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했고,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시작점과 동시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짓기

세 교사의 현재 교수 신념과 그에 따른 교수양식을 갖게 된 계기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바로 ‘유의미한 수업’이었다. 이는 세 교사가 각각 영어교사로서 경험을 하며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로 진학을 했고, 그 곳에서 참여한 강의에서 다루어졌던 주제이다.

‘유의미한 수업’에 대해 세 교사가 이야기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A교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체계화 시킬 수 있었던 계기라고 했다. 그 전까지의 교육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표현들을 배울 때, 언어를 사용하는 느낌을 모르고 그저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경험하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B교사는 ‘유의미한 수업’을 접하기 전까지는 수업연구라고 하면 게임에 대한 연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한 시간을 보낼까 하는 연구였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유의미한 수업’에서 ‘개인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자기의 생각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최종 목표로 두고 짧게는 단원, 길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교사는 ‘유의미한 수업’에 관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목표와 교과서가 우선이었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활동과 영어표현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의미한 수업’에 관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수업 목표나 교과서 내용보다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서 실제 삶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세 교사 모두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교사가 연수를 듣거나 대학원 진학을 통해 자기연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세 교사는 교육적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깨달음을 얻고, 이를 자신만의 것으로 체화시켜나가며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를 이루면서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 : ‘실제적인 영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세 명의 교사는 현재 영어교육에 대해 ‘실제적인 영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을 정립하였고, 이를 수업에 실현하고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세 교사는 모두 초기에 영어수업을 하는데 있어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내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A교사는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보조교사를 평가하는 수업에서 수업에 대해 칭찬을 받았고, B교사는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있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으며 C교사 또한 컨설팅 수업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A교사와 B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활동의 ‘즐거움’만을 쫓는 것 같고, 학습표현을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C교사는 공교육만으로 가능한 영어교육을 실행하기에는 자신의 수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세 교사 모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에 진학하여 영어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으며,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위한 수업을

강조하는 ‘유의미한 수업’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자신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립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 정착시켜나가는 영어교사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의 정립은 세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아 이를 적용하고 효과를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세 교사가 현재의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있어 ‘실제적인 영어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은 필수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라. 성장을 위한 도전

세 명의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세 교사 모두는 아이들이 만족하고 장학사나 주변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수업을 해 왔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A교사의 경우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교원대학교 파견 영어연수에 참여하였고, 수업발표대회에 도전하여 수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도교육청 관련 장학자료 공모에 도전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B교사는 자신이 가졌던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깬 것처럼, 학생들 또한 영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어수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어를 끔찍이도 싫어하던 B교사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던 것이다. B교사는 영어전담교사를 지원하는 도전을 하고, 이를 열성을 다해 해내면서 또 다른 도전들을 하게 된다. 자신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수업 기술 향상의 계기로 삼고, 나중에는 1년 프로젝트로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대회에도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고히 해나갔다. B교사는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성취가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C교사 또한 교실수업개선대회에 도전하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수업을 마음껏 해 나가며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을 언급하였다. 교실수업

개선대회에 참여하며 아이들에게서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니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 교사 모두는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하였고, 성취하며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다시 또 도전하고 성취하며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성장

세 교사 모두는 교사 커뮤니티 안에서 전문성을 개발 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A교사는 초임교사 시절 연구학교 보고회 수업을 준비하며 선배 교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때 선배교사가 수업 구성에 대해 조언해 준 것이 자신의 수업 구성의 체계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A교사는 또한 수업발표대회에 참여하여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영어교육분야에서 유명하셨던 교장선생님과 수업 분야에서 탁월하신 교감선생님께서 수업을 매 시간마다 보시고 수업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며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B교사는 교사는 수업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나,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개수업의 실행이나 영어 교육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영어공동체를 통해 수업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교사는 자신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매 영어수업이 끝나고 나면 원어민보조교사와 수업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가며 수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베스트 영어교사가 되고 나서는 함께 수업을 준비할 원어민보조교사가 없어 수업 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지속적인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강조하였다. C교사는 초임교사 때 영어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컨설팅 수업에 참여하여 조언을 받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제로 수업을 촬영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수업을 촬영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수업에 대한 코칭을 해주시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자신의 수업을 볼 수 있었고, 교사 중심의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이들을 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 안에서 생각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전문성 개발에 나타난 요인들이 주는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준 공통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준 공통요인을 크게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짓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 ‘성장을 위한 도전’,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성장’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의 요인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이러한 것이 영어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 경로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험의 바탕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은 교사 양성과정의 수업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훈련과정을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짓기’와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은 서로 맞물려 있는 요소이다. 많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에 참여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자기 연찬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향성 없는 지식의 습득은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가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성취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며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해 나가다 보면 자신이 봉착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막연히 ‘수업을 잘 하고 싶다’가 아니라 ‘수

업을 통해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찾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 속에 관점의 정립과 수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장을 위한 도전’은 현장에 있는 많은 교사가 꿈을 꾸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세 교사 모두는 자신의 수업의 발전을 위해 공개수업이나 수업발표대회에 도전하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해 왔다. 이는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성장’과도 맞물리는데, 혼자서 노력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협의와 조언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교직 사회 전반에서 공개수업을 교사의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고된 행사가 아닌 교사의 발전을 위한 조력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형식적이고 이벤트성 공개수업이 아닌 실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 교사의 전문성 확립과정을 살펴보고 성장 요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으나 이는 객관화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하지만 세 교사가 거쳐 온 과정에서 크게는 세 교사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요인과, 세부적으로는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고민,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열쇠는 ‘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각기 다른 개인이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 교사의 전문성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나, 좋은 수업을 하는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과정과 이에 참여한 요인들을 각기 다른 교사의 상황에 대입하여 본다면 ‘나 스스로’ 구체적인 지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V. 연구를 마치며

‘왜 아이들은 저 수업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2013년도 영어전담교사를 하게 되면서 갖게 된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이번 연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아 이러니 하게도 좌절감이었다. 처음 면담을 마치고 나서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스러운 감정이 들면서 지나온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여한 중요한 요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현재 위치에서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길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더 일찍 세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과 이에 관여한 요인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수업을 하는 세 명의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과정과 그의 요인에 대해 알 수 있게 됨이 행운이라고 여겨졌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준 요인을 크게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짓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 ‘성장을 위한 도전’,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성장’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는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왔으며 이를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없었고, 영어교육에 쏟게 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세 교사가 초기에 해 왔던 수업처럼, 연구자도 영어수업을 시작한 초기에 교과서 중심으로 ‘재미’를 중요시 하며 수업을 해 나갔으나 문제점을 느낄 새 없이 영어수업 경험에 공백이 생기면서 이때의 수업 형태는 3년 후 영어전담교사가 되었을 때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만약 연구자에게 영어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면 문제점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영어수업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면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구자는 초등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이러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돌이켜 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이 없이 단편적인 기술이나 활동들을 배우고 수업에 적용시키려 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수업 활동의 형태 전환수준의 변화만 있었다. 교육대학원 초등영어학과 진학과 본 연구를 통해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을 ‘실제적인 영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립하게 되었고, 이를 수업에 구현하기 위해 현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앞으로 습득하게 될 지식을 수업의 변화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연구자가 이번 연구를 하며 본인에게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성장을 위한 도전’이었다. 연구자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공개수업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수업발표대회에 나가는 것은 꿈조차 꾸지 않았다. 그러나 세 교사 모두는 자신의 수업의 발전을 위해 공개수업이나 수업발표대회에 도전하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해 왔다. 이는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성장’과도 맞물리는데, 혼자서 노력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협의와 조언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교직 사회 전반에서도 공개수업을 교사의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고된 행사가 아닌 교사의 발전을 위한 조력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형식적인 공개수업이 아닌 실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세 교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성취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며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만족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세 교사의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이에 관여한 요인들에 대해 읽어보고 각자의 삶에 대입하여 본다면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경희. (2015). 초등영어교육의 목표와 게임의 효용: 세 교사의 견해와 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 *Primary English Education*, 21(4), 141-170.
- 고재천. (2001). 초등교사의 전문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4(2), 159-179
- 곽민선. (2013).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원. (2007).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0(1), 37-62.
- 박애숙. (2005).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영어교사의 전문적 지식 제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사, 정혜영. (2015). 초등교사의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영어교육 전문성 인식 연구. *초등교육연구*, 28(2), 103-128.
- 윤근영. (2007). 초등교사의 수업 전문성 탐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초등교육학연구*, 14(1), 81-97.
- 이수현, 정혜영. (2012). 초등교사의 영어 수업전문성에 대한 인식 변화 탐색. *교육과학연구*, 43(3), 85-104.
- 이완기. (2007개정). *초등영어교육론*. 문진미디어.
- 정나라. (2015).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실천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지윤. (2007). 초등영어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희. (2014). 영어교사 자질과 좋은 영어수업에 관한 교사 집단 간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숙. (2014). 영어 관념의 유동성과 교사정체성의 다중성: 한 초등영어교과전담교사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언어학연구*, 19(2), 183-206.
- Clandinin, D.J. & Connelly, F.M.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

# A B S T R A C T \*

## Narrative Inquiry o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Hyeon, Gyu-hye

Major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yo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ree teachers with specialization as elementary English teachers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volved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teachers who want to develop.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three teachers as elementary English teachers? Second, what factor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ree professional teachers' professionalism as elementary English teachers? Third,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he teachers who are developing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rofessionalism a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pril, 2017

elementary English teachers? In order to find out the above questions, I recorded what the three teachers have experienced through the interview.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mmon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three English teachers were 'enjoyment communicating in English', 'linking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 to the change of class', 'establish perspective on English education', 'challenge for growth', and 'growth through teacher community'. In this study, we can not objectify these factors to all the teachers who have expertise or develop professionalism as the English teacher. However, we examine these factors and details of their thoughts, anxieties, efforts and concrete actions, The key to development will be found in 'I'. Teachers are different individuals and are in various situations. If we look at the proces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three teachers who are in good class, and apply the common factors involved in professional development to different teacher situations, we can find out what we need to develop professionalism.